

"미연아! 내 입으로 너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이 아버지도 왜 말 못하는 사람이 됐는지 모른다. 너를 낳았을 때 장애인만 되지 말라고 부처님께 열심히 매달렸지. 내가 정상인으로 자리잡자 아버지는 너무나 기쁘고 더이상 바랄 것이 없어..."

지난 16일 재단법인 일념장학회가 주최한 제1회 수화찬불가 발표회에서 청각·언어장애인 복지모임인 '백화도량' 회원 자원주씨가 딸 미연이에게 보내는 편지글이다. 3백여 관객이 운집한 장내는 갑자기 숙연해졌으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자원주씨의 편지는 계속됐다.

"싫어하는 너에게 수화를 빨리 배우라고 독촉한 것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



일념장학회 '제1회 수화찬불가 발표회' 현장

◇백화도량회원들이 언어적장애자들을 위해 수화로 찬불가를 부르고 있다.

씨 박자를 맞추는 즐거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관(전 범어사 주지), 심산(봉토사 부산포교원장)스님 등을 비롯한 3백여 사부대중들이 백화도량 사람들과 함께 한 어슬픈 수화 장애인과 정상인을 구별해주는 모든 분별심을 없애 버리려는 하나됨의 몸짓으로 남아 긴 어운을 남겼다. 공연을 끝까지 지켜본 한 관객은 수화찬불가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 이번 공연이 장애인들이 가지는 몸의 불편함을 압도하는 정상인들의 편견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청법가' 등 울려 퍼지자 관객들 '한마음'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수화통역을 담당한 강주수(백화도량 수화지도)씨는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77.7%의 사람들이 장애인과 같이 일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 장애인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청각장애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을 욕하는 소리라도 좋으니 단 3분 만이라도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라며 불자들이 수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부산=박영근 기자

"딸아! 수화를 통해서라도 부녀의 정 나누고 싶구나"

이였지. 사랑한다. 미연아!

이날 수화찬불가 발표회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언어인 수화를 널리 보급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이 불법(佛法)에 귀의함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백화도량 회원들의 수화와 한마음선원 부산지인 합창단의 은은한 선율이

장애·정상 분별심 없애는 인간사랑 '화합의 자리'

조화를 이룬 '찬양합니다' '청법가'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관세음여 노래' 등 수화로 부르는 찬불가가 장내에 가득 울려 퍼지자 반쯤은 호기심어린 눈으로 행사를 지켜보았던 관객들의 마음

은 어느새 뜨거워지고 있었다.

또 자신들의 수화찬불가가 정상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궁금해하던 백화도량 회원들의 불안은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않는 관객들의 호응으로 말끔히 씻어진 듯 했으며 '소양강 처녀'를 부를 즈음해서는 모든 관객들이 박수로



◇아이들에게 있어 엄마와 학습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엄마가 선생님이요, 친구이다.

교계 사회복지관 '가족문화강좌' 인기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는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학교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나둘씩 모여 들기 시작한다.

최근들어 이렇게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교계 문화센터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도심사찰이나 복지관 등 불교계 문화센터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나 방학을 이용한 강좌로 수영, 종이접기, 칠할놀이, 서예교실, 공작

생들이 각종 실험공부에 열중하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 엄마와 함께 참석한다. 이처럼 불교계문화센터는 가족과 함께하는 강좌를 통해 심심증상은 물론 가정의 화목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강심보살(48, 구로 3동)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실험실습을 하며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 강좌를 신청했다"며 "무엇보다 공동관심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모자간의 대화를 이끌어 낸다는

"엄마와 함께 대화 기쁨 두배"

놀이, 동화그림그리기, 컬러믹스 창의력 개발과 과학놀이 교실 등을 열고 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저학년과 고학년반을 나눠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어머니와 함께하는 과학교실을 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아이들의 창의력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개설한 과학교실은 현재 30여명의 수강

수영·서예·컬러믹스·과학교실등 다양

점에서 적절한 강좌"라고 생각한다며 기뻐했다.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도 엄마와 함께하는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4시30분

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수영교실은 현재 정신지체장애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생활패턴이 선진국화하면서 문화생활도 가족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 변화에 맞춰 앞으로 엄마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덕유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취학전 아동과 엄마가 함께하는 종이접기교실 등을 비롯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아파트촌이나 주택가에 설립된 포교원이나 문화센터에서 개설하고 있는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불교계의 새로운 향속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준근 기자

만화 법구경

올바름의 장
진실과 진리와
불살생과 절제와
자제로써...



부처님께서 제때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날 인사를 올리러온 30명의 비구를 맞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이 모두 아라한(阿羅漢)을 성취할 시기가 성숙했음을 아시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시기를 비구들이여!

여러 방에 들어오기 전에 건너방에서 머물고 있는장로(長老)에게 인사를 올리고 왔느냐?

자... 장로라뇨?

장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본 사람은 키가 작고 어린 사미(沙彌) 한 사람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보긴 보았으되 알아보진 못했구나

비구들이여! 그 키작은 사미가 아니나라

사... 사미가 아니면?

그럼 그 아이가 장로란 말씀입니까?

비록 몸이 작아 나이는 들어 보이지 않지만

그는 어엿한 장로이나라

어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를 장로라 부르지 않으며

또 장로처럼 보인다고 해서 장로라 부르지는 않느니라

다만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아 빠르게 이해하며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을 장로라 부르니라

우린 아직 멀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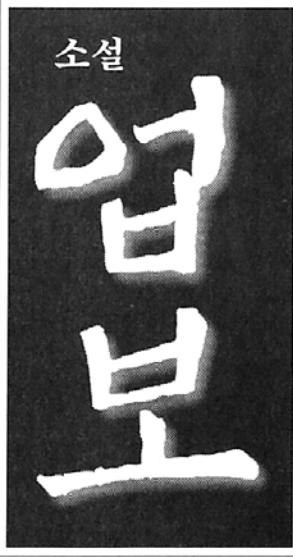
비구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부처님께서 두편의 계승을 읊으셨다

머리카락이 희다고 해서 장로(長老)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이만을 먹었다면 그는 부질없이 늙어버린 속된 늙은이

진실과 진리와 불살생과 절제와 자제로써 더러운 때를 벗어버린 사람을 진정한 장로라 한다

사랑도, 혁명도, 역사도 다 업(業)이어라

죄없고 빛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업을 안고 산다.



까뚱모를 허전함에 가슴시킨 날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뿐인데 삶은 왜 지꾸 치열해지고 세상은 왜 나를 두고 앞으로만 달아나는지... 범거승이로 태어나 수의 한 번 벌 얻어 있고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시련도 꿈도 역사도 결국 업으로 받는 과보인 것을 지천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이르러야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소설 업보는 5.18광주항쟁을 배경으로 신념을 받고 무너져 버린 구한 한 여인과 과거승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불도의 길을 걷게 되는 아들의 절박한 인간살이를 통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삶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승가쁘게 넘어가는 책갈피마다에서 묻어 나오는 슬픔과 아픔은 우리의 삶 자체가 고행의 길인 동시에 수행의 길임을 깨닫게 한다.

반야심경의 작가 헤베오님이 눈물로 피로 배려한 살아 있는 혼의 소설 업보 업보는 지금을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 바로 책을 그리고 있다.

소설 업보와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이 땅의 승려로서 80년 5월의 황정은 나의 풀리지 않는 화두였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업장. 그 인과에 의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진국 서점가 베스트셀러 예고 헤베오님 장편소설

산중 암자로 떠나 버린 스님이 독 던지고 간 소설! 그렇다. 온통이 아닌 직극적인 실천의 삶. 불교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리현석(문학평론가)-

헤베오님의 소설 업보의 주인공 불내에게 이 땅의 들들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 변화할 것이다. -이종학(변호사)-

진국 서점 출판 판매중
전2권 각권 값 6,000원 신국문

베어른 우리 현대사를 業으로 조명한 헤베오님의 절박한 인간살이의 화두

사람의 길은 진실로 사람이 가야할 길을 알려주는 길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신바람 나게 살아라! 내승 뚝, 체면치레 뚝!

사람의 길

이항봉 스님 장편 구도 소설

사람은 누구나 착하다.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열려 있다. 진리 또한 열려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대로 말고, 맞고 맞머 노력하고 여유있게 당당하게 사는 거다. 인간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 한번뿐인 인생. 생명은 오직 하나. 연승으로 소모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립다운 사람이다.



*인도성지의 길에서 사람의 길을 찾아 향봉 스님이 던지는 인생의 화두!
진국 서점 출판 판매중
전2권 각권 값 3,450원 신국문 양장본